

제8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수상작

민족문학작가회의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후원

시제: 운문부문 - 5·18, 수첩 / 산문부문 - 5·18, 미성년자 관람불가

●다음 작품들은 '5·18 관련 주제'로 작품을 써 수상한 작품모음입니다.

■산문차하

민주화와 레드 콤플렉스

박범유(대원외고 2년)

작년 가을, 문예 동아리의 공연을 위해 5.18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본 일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 등 활자로 된 자료보다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시각적인 자료에 역시 더 이끌렸는데, 그 중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남녀노소,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개처럼 두들겨 패는(개처럼 팬다고 표현하기에는 개가 불쌍할 정도였다) 군인들의 살벌한 모습과 끔찍하다 못해 소름끼치는, 피투성이의 희생자들 사진이었다. 발포로 인한 유혈사태라고만 알고 있었던 내 막막한 상상과는 크게 다른,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직접 보게 된 후 한 가지 의문거리가 생겼다. 내가 본 사진들 중 단 한 장만, 길거리에서 벗겨진 채 구타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 둘 곳이 없어 거적에 싸인 채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시신들이 쌓여 있는 사진을 단 한 장이라도 보았다라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4.19혁명으로 이승만을 몰아내기도 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과, 오늘날 서로 시합이라도 하듯 정부의 실책과 비리를 들추어내기 바쁜 용감한 언론들은 당시에 왜 광주를 도울 수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정부는 광주에 군대를 투입한 이유를 좌익세력, 쉽게 말하면 빨갱이를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의 군대가 우리 한민족을 죽이는데, 분노와 놀람 대신 두려움으로 인한 침묵을 지키게 만든 힘은 바로 레드 콤플렉스이다.

이 레드 콤플렉스는 그 뿌리가 깊다. 이승만이 많은 약점을 가지고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약간의 운, 그리고 부정과 함께 국민들의 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며, 박정희가 국민들의 희생을 동반한 무리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장기간의 독재와 반민주적인 공포 통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도 역시 레드 콤플렉스에서 기인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군부 독재 정권이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전국민적인 반발 없이 임기를 다할 수 있었던 것도 레드 콤플렉스의 결과이며,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 레드

콤플렉스의 가장 큰 희생양이다. 계엄령이 공포되고 당시 정부의 삼엄한 통제 하에서 시민들은 광주 사태의 실상을 알 길이 없었고, 5.18 사태를 언급하는 일조차 반국가적인 행위로 처벌받는 공포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5.18 운동의 진상이 밝혀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5.18 희생자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레드 콤플렉스의 영향을 꼭 먼 옛날의 일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해 교전이 보도된 후, 우리의 언론과 국민들은 북의 함선을 침몰시키지 못한 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물론 우리측 장병의 죽음도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한 민족 간에 이런 비극을 발생시킨 우리의 분단 상황과 상호간의 적대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북한의 함선을 침몰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전사한 우리 장병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민족인 북한 장병을 더 죽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올바른 반응일까?

우리의 일상 속에 내재된 전체주의, 과시즘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치인의 아들이, 어느 재벌 2세가 병역을 마쳤는지 기피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가 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아니, 의무병역제를 비판할 생각조차 갖지 못한다(병역 제도에 대한 의견은 이야기할 미묘한 부분이 많기에 글의 주제상 더 깊게 언급하지 않겠다).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지난 수십 년간 반공, 국수의 의무교육을 받아 온 우리의 의식 중에는 개인보다는 당연히 국가가 우선이며(그렇기에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민족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 있어서 힘있는 개인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의 성장을 방해하고 깊은 민족애를 필요로 하는 통일을 막아 남북 간의 분단과 적대를 고착화시켰다.

그 동안 민주화를 방해해 왔던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민주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강조되어졌던 경제 발전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레드 콤플렉스에서의 탈피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은 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경기가 평양에도 중계되고, 전 세계에서 모두 붉은 옷을 입고 힘차게 외쳤던 코리아의 함성은 민족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리고 지금의 국민적인 열기를 성숙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발전시켜 참 민주주의 국가를, 더 나아가 통일된 민족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다.

광주의 봄날을 그리며

박성준(원주공업고등학교 3학년)

태양의 열기로
따스함이 사라진 봄날의 광주
거리 곳곳마다 어지러운
아지랑이가 피어 올랐다.

고개 내밀지 못한 어린 새싹
초록의 빛 뿜내지 못한 채 시들어 갔고
눈에는 잘 영글었던 과거들이
더위 바람에 떨어져 썩고 있었다.
우물마다 침묵이 고여 있고
두레박의 현 줄로는
지난날의 시간을 퍼 올릴 수 없었다.
담벼락 사이로 메마른 슬픔이 타고 오르면
빈 시간이 빠져나간 골목엔
어둠이 발을 내렸다.
물소리로 가득했을 시냇가는
스스로 제 몸의 수위를 줄였고
푸르름으로 가득 했을 산에는
추억의 이파리가 지고 있었다.

광주의 뿌리에
매달린 5.18 이후의
목마른 풍경들
이듬해 돌아올
새 봄을 기억하듯
햇빛 속에 숨은 아지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렁이고 있었다.

행방불명자 묘역
(行方不明者 墓域)

이곳은 1980년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으로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여
묘비만을 신기하셨습니다.

5.18

신지혜(경안고등학교 2학년)

우리 집
우리 집에는 창고가 있다.
양상한 나무뺨
주름살만 남은 창고가 있다.

삐그덕
햇빛 없는 오랜 창고에서
어린 나는
가장 큰 것을 건드려 봤다.

나는
고장난 역사를 덮어 두었던
무거운 비닐을
줄다리기 하듯, 벗겨내었다.

먼지로
두꺼운 걸장 만든 설운 시간
내 하얀 입김에
먼지는 바람으로 승화하였다.

몽글한
잡동사니 속은 시간에 절은
꽤패한 옛 냄새
나는 고장난 역사를 펼쳤다.

야수의
송곳니 같은 흑백 사진들

오래된 사진전에 묻은
붉은 역사의 핏자국이 보였다.

거짓말
가짜로 도배된 한자투성이
까만 활자들이
흙으로 풍화하여 진실이 되었다.

슬픈 詩
세로로 난 차가운 철창살 안으로
늪은 시인이 남긴
자유의 언어들을 나는 읽었다.

어느 날
자유로 얼룩진 그 어느 날
바람의 열기가
스무해를 진실의 역사로 바꾸었다.

그 날의
새푸른 무덤 언덕의 령은
진실한 하늘로
흐르는 은하수가 되었다.

그리고
창고 안에 갇혀 있었던
고장난 역사는
하얗게 고쳐져 하늘이 되었다.